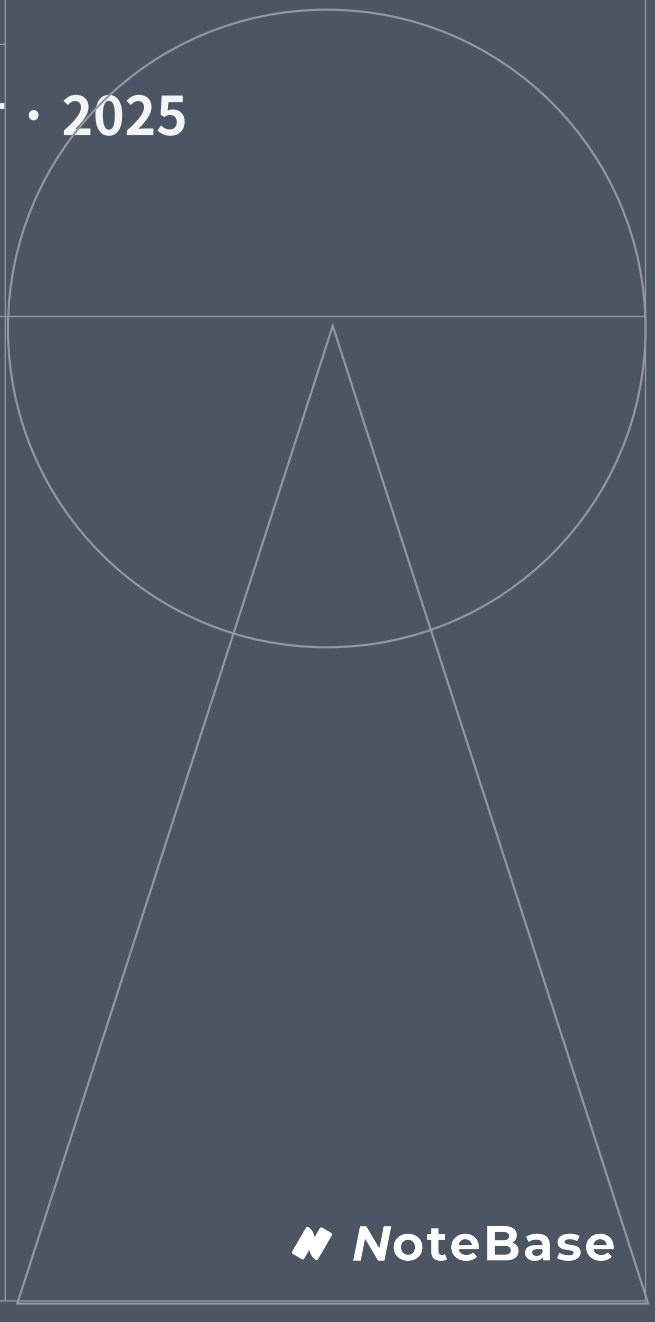
# 기출OX 해설집

공무원/군무원/9급 · 경영학 · 2025



NoteBase

# 기출OX 해설집

## 공무원/군무원/9급 · 경영학 · 2025

**공무원/군무원/9급 · 경영학 · 2025**

1. 경제적 주문량(Economic Order Quantity: EOQ) 모형의 활용을 위한 기본 가정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단위당 재고유지비용과 1회당 재고주문비용은 주문량과 관계 없이 일정함.
   ② 단위기간 중 수요량은 가변적이며 일정 및 연간 수요량 역시 미확정적임.
   ③ 재고조달기간(리드타임)은 일정함.
   ④ 구입단가는 주문량과 관계 없이 일정함.(수량할인 없음)

**정답 2번**

### 출제 포인트

기본 EOQ 모형이 주문량을 결정하기 위해 전제하는 확정적 수요, 일정한 비용, 일정한 리드타임, 수량할인 없음의 가정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 핵심 개념

경제적 주문량(EOQ)은 연간 주문비용과 재고유지비용의 합을 최소화하는 1회 주문량이다. 기본 모형은 수요율과 연간 수요량이 알려져 있고 일정하며, 주문비용·단위당 재고유지비용·리드타임이 일정하고, 수량할인이 없어 구입단가가 주문량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이때 경제적 주문량은 $Q^* = \sqrt{2DS/H}$ 이며, $D$는 연간 수요량, $S$는 1회 주문비용, $H$는 단위당 연간 재고유지비용이다.

### 선지별 해설

① O — 기본 EOQ 모형에서는 단위당 재고유지비용과 1회 주문비용을 주문량과 무관한 일정한 값으로 본다.
② X — '단위기간 중 수요량은 가변적'이고 '연간 수요량은 미확정적'이라는 표현이 틀렸다. 올바르게는 단위기간의 수요율이 일정하고 연간 수요량도 확정되어 있다고 가정한다.
③ O — 주문부터 입고까지 걸리는 재고조달기간, 즉 리드타임은 일정하다고 가정한다.
④ O — 수량할인이 없으므로 구입단가는 주문량과 관계없이 일정하다고 가정한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②의 '가변적'과 '미확정적'은 현실의 수요 특성처럼 보여 혼동하기 쉽다. 그러나 기본 EOQ는 현실을 단순화한 확정적 모형이므로 수요의 변동성과 불확실성을 가정하지 않는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기본 EOQ의 가정 여부는 '수요·비용·리드타임은 알려져 있고 일정한가, 수량할인은 없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수요가 가변적·확률적·미확정적이라고 하면 기본 EOQ 가정에 어긋난다.

**암기 포인트**

기본 EOQ는 수요·비용·리드타임은 일정, 수량할인은 없음이다.

NoteBase

2. 회계등식 또는 재무상태표 등식으로 적절한 것은?
① 자산 = 부채 + 자본
② 자산 + 비용 = 부채 + 자본 + 수익
③ 자산 = 자본 − 부채
④ 자본 = 자산 + 부채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재무상태표의 자산·부채·자본 사이에 성립하는 기본 회계등식을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재무상태표 등식은 기업의 자산이 채권자의 몫인 부채와 소유주의 몫인 자본으로 조달되었음을 나타내는 등식이다. 따라서 자산=부채+자본이 성립한다. 이를 이항하면 자본=자산-부채도 성립한다. 수익과 비용은 일정 기간의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항목이므로 기본 재무상태표 등식에는 직접 표시하지 않는다.

**선지별 해설**

① O — 자산=부채+자본은 자산의 조달 원천을 부채와 자본으로 나누어 나타낸 기본 회계등식이자 재무상태표 등식이다.
② X — 틀린 부분은 수익과 비용을 기본 재무상태표 등식에 직접 포함한 것이다. 자산+비용=부채+자본+수익은 수익·비용까지 결합한 확장 등식으로 볼 수 있지만, 이 문항에서 묻는 재무상태표 등식은 자산=부채+자본이다.
③ X — '자산 = 자본 - 부채'에서 부채의 부호가 잘못되었다. 올바르게는 자산=자본+부채, 즉 자산=부채+자본이다.
④ X — '자본 = 자산 + 부채'에서 부채의 부호가 잘못되었다. 올바르게는 자본=자산-부채이다.

**오답 포인트**

②는 항등적으로 정리 가능한 확장 형태를 제시하여 기본 재무상태표 등식과 혼동하게 만든다. 또한 ③과 ④는 부채를 이항할 때 부호가 바뀐다는 점을 놓치게 하는 선지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기본식 자산=부채+자본을 세운 뒤 선지의 식을 이 식과 대조한다. 자본을 구할 때에는 부채를 반대편으로 이항하므로 자본=자산-부채가 된다.

**암기 포인트**

자산은 부채와 자본의 합이고, 자본은 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이다.

NoteBase

3. 테일러(Taylor)의 과학적 경영관리법(Scientific Management)의 네 가지 원칙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절차의 표준화
② 과학적 선발 및 훈련
③ 효율적 과업수행
④ 창의력 향상을 위한 전문화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을 구성하는 네 가지 원칙과 그 목적을 연결하는 문제이다.

**핵심 정리**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은 경험과 관행에 의존하던 작업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생산성을 높이려는 이론이다. 핵심 원칙은 과학적 작업방법의 개발, 근로자의 과학적 선발·훈련, 경영자와 근로자의 긴밀한 협력, 양자 간 일과 책임의 균등한 분담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 절차의 표준화는 작업의 각 요소를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최선의 작업방법과 표준을 정한다는 원칙에 해당한다.
② O — 근로자를 과학적으로 선발하고 체계적으로 훈련·개발하는 것은 과학적 관리법의 핵심 원칙이다.
③ O — 정해진 과학적 작업방법에 따라 과업이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경영자와 근로자가 협력한다는 원칙에 해당한다.
④ X — 틀린 표현은 '창의력 향상을 위한 전문화'이다. 올바르게는 경영자와 근로자 사이에 일과 책임을 균등하게 분담하여 각자가 적합한 역할을 담당한다는 원칙이다. 창의력 향상은 테일러가 제시한 네 가지 원칙의 목적이 아니다.

**출제자가 노린 함정**

④의 '전문화'라는 말은 분업과 비슷해 보여 그럴듯하지만, 과학적 관리법의 분업은 창의력 향상이 아니라 경영자와 근로자의 일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나누어 능률을 높이는 데 초점이 있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테일러가 나오면 작업방법의 과학화, 과학적 선발·훈련, 노사 협력, 일과 책임의 분담이라는 네 축에 선지의 표현을 대응시킨다. 인간의 창의성·자율성·사회적 욕구를 강조하는 표현은 과학적 관리법의 핵심 원칙과 구별한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테일러의 네 원칙은 '과학적 방법—과학적 선발·훈련—협력—책임 분담'이다.

NoteBase

4. 투자에서 얻어지는 가치의 순증가분을 의미하는 개념으로 적절한 것은?
① 수익성지수 ② 순현재가치
③ 내부수익률 ④ 한계수익률

**정답 2번**

### 출제 포인트

투자안 평가기법 가운데 투자로 인해 기업가치가 얼마나 순증가하는지를 금액으로 나타내는 개념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 핵심 개념

순현재가치(NPV)는 투자로 얻는 미래 현금유입의 현재가치에서 현금유출의 현재가치를 뺀 금액이다. 즉, NPV=현금유입의 현재가치-현금유출의 현재가치이며 투자로 창출되는 가치의 순증가분을 뜻한다.
수익성지수는 현금유입의 현재가치를 현금유출의 현재가치로 나눈 비율이고, 내부수익률은 순현재가치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이다. 순현재가치는 금액, 수익성지수와 내부수익률은 비율이라는 점이 핵심 차이이다.

### 선지별 해설

① X — 수익성지수는 투자로 얻는 가치의 순증가분이라는 금액 개념이 아니라 현금유입의 현재가치를 현금유출의 현재가치로 나눈 상대적 수익성 지표이다. 틀린 표현인 '수익성지수'는 '순현재가치'로 고쳐야 한다.
② O — 순현재가치는 현금유입의 현재가치에서 현금유출의 현재가치를 차감한 값으로, 투자가 기업가치에 더하는 순증가분을 나타낸다.
③ X — 내부수익률은 가치의 순증가분이 아니라 순현재가치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이다. 틀린 표현인 '내부수익률'은 '순현재가치'로 고쳐야 한다.
④ X — 한계수익률은 추가 투자에 따른 한계수익을 추가 투자액과 비교하는 수익률 개념이므로 가치의 순증가분 자체가 아니다. 틀린 표현인 '한계수익률'은 '순현재가치'로 고쳐야 한다.

### 오답 포인트

투자안 평가기법이라는 공통점 때문에 ① 수익성지수와 ③ 내부수익률을 고르기 쉽다. 그러나 문제의 '가치의 순증가분'은 비율이나 할인율이 아니라 현재가치의 차액을 묻는 표현이다.

###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가치의 순증가분·현재가치의 차액'이면 순현재가치, '현재가치의 비율'이면 수익성지수, '순현재가치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이면 내부수익률로 판단한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NPV는 가치의 차액, PI는 현재가치의 비율, IRR은 NPV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이다.

NoteBase

5. 마케팅 조사자료의 측정을 위한 4대 척도(Scale)의 종류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명목척도(Nominal), 서열척도(Ordinal), 등간척도(Interval), 비율척도(Ratio)
② 명목척도(Nominal), 정량척도(Quantitative), 등간척도(Interval), 서열척도(Ordinal)
③ 명목척도(Nominal), 정량척도(Quantitative), 정성척도(Qualitative), 서열척도(Ordinal)
④ 명목척도(Nominal), 서열척도(Ordinal), 정성척도(Qualitative), 비율척도(Ratio)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마케팅 조사자료를 측정하는 네 가지 기본 척도인 명목척도, 서열척도, 등간척도, 비율척도를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명목척도(Nominal)는 대상을 이름이나 범주로 구분하는 척도이며, 숫자를 붙여도 분류의 의미만 있다.
서열척도(Ordinal)는 대상의 순위나 크고 작음은 나타내지만 순위 사이의 간격이 같다고 볼 수 없는 척도이다.
등간척도(Interval)는 측정값 사이의 간격이 동일하지만 절대적 영점이 없어 배수 비교는 할 수 없는 척도이다.
비율척도(Ratio)는 동일한 간격과 절대적 영점을 모두 가지므로 차이뿐 아니라 배수 비교도 가능한 척도이다.
정성적·정량적 자료는 자료를 성격에 따라 나누는 상위 분류이고, 정성척도·정량척도는 이 문항이 묻는 네 가지 측정척도의 명칭이 아니다.

**선지별 해설**

① O — 명목척도(Nominal), 서열척도(Ordinal), 등간척도(Interval), 비율척도(Ratio)를 모두 정확히 제시하므로 옳다.
② X — '정량척도(Quantitative)'는 네 가지 기본 측정척도 중 하나가 아니며, 이 선지에는 비율척도가 빠져 있다. 올바르게는 명목척도, 서열척도, 등간척도, 비율척도이다.
③ X — '정량척도(Quantitative)'와 '정성척도(Qualitative)'는 네 가지 기본 측정척도의 명칭이 아니며, 등간척도와 비율척도가 빠져 있다. 올바르게는 명목척도, 서열척도, 등간척도, 비율척도이다.
④ X — '정성척도(Qualitative)'는 네 가지 기본 측정척도 중 하나가 아니며, 이 선지에는 등간척도가 빠져 있다. 올바르게는 명목척도, 서열척도, 등간척도, 비율척도이다.

**오답 포인트**

②~④는 자료의 성격을 나타내는 정성적·정량적이라는 표현을 측정척도의 이름처럼 섞어 놓았다. 네 가지 척도의 공식 명칭을 정확히 기억하지 않으면 익숙한 영어 표현에 끌리기 쉽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선지에 명목·서열·등간·비율이 모두 들어 있는지 먼저 확인한다. 이어서 분류만 가능한지, 순서가 있는지, 간격이 동일한지, 절대적 영점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각 척도를 구분한다.

**암기 포인트**

명목은 분류, 서열은 순위, 등간은 같은 간격, 비율은 절대적 영점이다.

NoteBase

6. 소집단 네트워크와 효과성 기준을 연결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네트워크 \ 기준 | | 속도 | 정확성 | 리더의 등장 | 구성원 만족 |
|---|---|---|---|---|---|
| ㉮ | 체인형 | 보통 | 높음 | 보통 | 보통 |
| ㉯ | 체인형 | 빠름 | 높음 | 보통 | 높음 |
| ㉰ | 수레바퀴형 | 빠름 | 높음 | 보통 | 낮음 |
| ㉱ | 완전연결형 | 빠름 | 보통 | 높음 | 높음 |

① ㉮ ② ㉯
③ ㉰ ④ ㉱

**정답 1, 2, 3, 4번**

**출제 포인트**

소집단 의사소통 네트워크의 구조와 속도·정확성·리더의 등장·구성원 만족의 관계를 묻는 문제이다. 이 문항은 과업의 난이도와 측정 조건을 제시하지 않아 각 효과성 지표가 하나의 고정값으로 결정되지 않으므로 네 선택지가 모두 정답으로 인정된다.

**핵심 개념**

체인형: 정보가 구성원 사이의 정해진 경로를 따라 순차적으로 전달되는 비교적 집권적인 네트워크이다. 전달 경로가 통제되어 정확성은 높게 나타나기 쉽지만, 속도와 만족은 과업 및 운영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수레바퀴형: 중심 인물이 모든 구성원과 연결되는 집권적 네트워크이다. 단순 과업에서는 속도와 정확성이 높고 주변 구성원의 만족은 낮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완전연결형: 모든 구성원이 서로 직접 의사소통하는 분권적 네트워크이다. 참여와 만족은 높지만, 조정 방식과 과업의 복잡성에 따라 속도·정확성·리더 출현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

NoteBase

### 선지별 해설

① O — 체인형은 전달 경로가 제한되어 정보의 정확성이 높게 유지되기 쉽고, 속도·리더의 등장·구성원 만족을 보통으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제시된 연결이 성립한다.
② O — 반복적이고 역할이 안정된 과업에서는 체인형의 전달 속도가 빨라질 수 있으며, 역할의 명확성과 안정성이 만족을 높일 수 있으므로 제시된 연결도 가능하다.
③ O — 수레바퀴형은 중심을 거쳐 정보가 모이므로 단순 과업에서 속도와 정확성이 높고, 주변 구성원의 참여가 제한되어 만족은 낮다. 리더의 등장은 별도의 측정 기준에 따라 보통으로 평가될 수 있어 정답으로 인정된다.
④ O — 완전연결형은 구성원 간 직접 소통으로 참여와 만족이 높다. 공유가 원활한 과업에서는 속도가 빨라질 수 있고 비공식 조정자가 뚜렷하게 나타날 수 있으며, 다수의 정보가 오가므로 정확성은 보통으로 평가될 수 있어 정답으로 인정된다.

### 오답 포인트

네트워크별 효과를 언제나 하나의 고정된 결과로 외우는 것이 함정이다. 속도와 정확성은 과업의 단순성·복잡성에 따라 달라지고, 리더의 등장과 만족도 측정 방식에도 차이가 생길 수 있다. 이 문항처럼 조건이 제시되지 않으면 여러 연결이 동시에 성립할 수 있다.

###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집권형인지 분권형인지 구분한 뒤 과업 조건이 제시되었는지를 확인한다. 집권형은 단순 과업의 속도·정확성에, 분권형은 복잡한 과업의 정보 공유·참여·만족에 상대적으로 유리하다는 경향을 적용하되, 조건이 없으면 효과성 지표를 절대적인 값으로 단정하지 않는다.

### 암기 포인트

집권형은 통제·단순 과업, 분권형은 참여·복잡 과업에 강하며, 효과성은 과업 조건에 따라 달라진다.

NoteBase

7. 목표관리기법(MBO) 프로그램의 공통된 네 가지 요소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목표 특수성 ② 의사결정 참가
③ 명확한 기간 ④ 분배적 정의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목표관리기법(MBO)의 공통 요소인 목표의 구체성, 참여적 의사결정, 명확한 기간, 성과 피드백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목표관리기법(MBO)은 상급자와 구성원이 목표를 함께 설정하고, 정해진 기간 동안 수행한 결과를 측정하여 피드백하는 관리 방식이다. 핵심 요소는 구체적인 목표, 의사결정 참여, 명확한 달성 기간, 성과에 대한 피드백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 목표 특수성은 목표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설정한다는 뜻으로, MBO의 공통 요소이다.
② O — 의사결정 참여는 상급자와 구성원이 목표 설정 과정에 함께 참여한다는 뜻으로, MBO의 공통 요소이다.
③ O — 명확한 기간은 목표를 언제까지 달성할 것인지 시간 범위를 정하는 것으로, MBO의 공통 요소이다.
④ X — '분배적 정의'는 보상이나 자원의 분배 결과가 공정한지를 다루는 조직공정성 개념이므로 MBO의 공통 요소가 아니다. 틀린 표현인 '분배적 정의'는 '성과 피드백'으로 고쳐야 한다.

**오답 포인트**

④의 '분배적 정의'가 조직관리에서 쓰이는 용어라는 이유만으로 MBO의 요소라고 오인하기 쉽다. MBO는 목표를 구체적으로 함께 정하고, 기간을 정해 수행한 뒤 성과를 피드백하는 과정에 초점을 둔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선지가 목표의 구체성·참여적 설정·달성 기간·성과 피드백 중 하나에 해당하는지 확인한다. 보상 배분의 공정성과 같은 별도의 조직행동 개념이면 MBO의 공통 요소에서 제외한다.

**암기 포인트**

MBO의 네 요소는 '구체적 목표-참여-기간-피드백'이다.

NoteBase

8. 기업의 소유주(주주, 채권자)와 대리인(경영자) 간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대리인 비용(Agency Cost)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관리비용(Management Cost), 투자손실(Investment Loss), 계약비용(Contract Cost)
② 감시비용(Monitoring Cost), 잔여손실(Residual Loss), 확증비용(Bonding Cost)
③ 감시비용(Monitoring Cost), 잔여손실(Residual Loss), 계약비용(Contract Cost)
④ 관리비용(Management Cost), 투자손실(Investment Loss), 확증비용(Bonding Cost)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대리인비용을 구성하는 감시비용, 확증비용, 잔여손실의 정확한 명칭과 의미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대리인비용은 소유주와 경영자의 이해관계 불일치로 생기는 비용이며, 감시비용·확증비용·잔여손실로 구성된다.
감시비용(Monitoring Cost): 주주·채권자 등 주인이 대리인의 행동을 관찰하고 통제하는 데 드는 비용이다.
확증비용(Bonding Cost): 대리인이 주인의 이익을 해치지 않겠다고 보증하거나 자신의 행동을 제한하는 데 드는 비용이다.
잔여손실(Residual Loss): 감시와 확증을 하고도 이해관계 불일치가 남아 발생하는 주인 가치의 감소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 '관리비용, 투자손실, 계약비용'은 대리인비용의 표준 구성요소 명칭이 아니다. 올바르게는 '감시비용, 잔여손실, 확증비용'이다.
② O — 감시비용(Monitoring Cost), 잔여손실(Residual Loss), 확증비용(Bonding Cost)은 모두 대리인비용의 구성요소이다.
③ X — 감시비용과 잔여손실은 맞지만 '계약비용(Contract Cost)'이 틀렸다. 올바르게는 '확증비용(Bonding Cost)'이다.
④ X — 확증비용은 맞지만 '관리비용(Management Cost)'과 '투자손실(Investment Loss)'이 틀렸다. 올바르게는 각각 '감시비용(Monitoring Cost)'과 '잔여손실(Residual Loss)'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일상적으로 그럴듯한 '관리비용·투자손실·계약비용'을 이론상의 정식 구성요소로 착각하기 쉽다. 특히 ③은 앞의 두 용어가 맞아 보이지만 마지막의 계약비용을 확증비용으로 바꾸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대리인비용의 선택지는 감시(Monitoring)·확증(Bonding)·잔여손실(Residual Loss)의 세 용어가 모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하나라도 관리·투자·계약 같은 다른 용어로 바뀌면 틀린 선택지이다.

**암기 포인트**

대리인비용은 '주인이 감시, 대리인이 확증, 그래도 남는 잔여손실'이다.

NoteBase

9. 소비자들의 구매의사결정 과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문제인식 → 대안평가 → 정보탐색 → 구매결정 → 구매 후 행동
② 정보탐색 → 문제인식 → 대안평가 → 구매결정 → 구매 후 행동
③ 정보탐색 → 대안평가 → 문제인식 → 구매결정 → 구매 후 행동
④ 문제인식 → 정보탐색 → 대안평가 → 구매결정 → 구매 후 행동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소비자의 구매의사결정 과정에서 문제인식, 정보탐색, 대안평가, 구매결정, 구매 후 행동의 올바른 순서를 묻는 문제이다.

**올바른 순서**

1. 문제인식 — 소비자가 현재 상태와 원하는 상태의 차이를 느끼고 욕구를 인식하는 단계이다.
2. 정보탐색 —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품과 상표에 관한 정보를 찾는 단계이다.
3. 대안평가 — 수집한 정보를 기준으로 여러 대안을 비교하는 단계이다.
4. 구매결정 —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실제 구매 여부와 대상을 정하는 단계이다.
5. 구매 후 행동 — 사용 후 만족 또는 불만족을 경험하고 이후 행동으로 연결하는 단계이다.

왜 이 순서: 문제를 먼저 인식해야 정보탐색이 시작되고, 탐색으로 얻은 정보가 있어야 대안을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대안평가 → 정보탐색'의 선후관계가 바뀌었다. 대안을 평가하려면 먼저 정보를 수집해야 한다. 올바르게는 '문제인식 → 정보탐색 → 대안평가 → 구매결정 → 구매 후 행동'이다.

② X — '정보탐색 → 문제인식'이 잘못되었다. 구매 필요나 욕구를 먼저 인식해야 관련 정보탐색이 시작된다. 올바르게는 '문제인식 → 정보탐색 → 대안평가 → 구매결정 → 구매 후 행동'이다.

③ X — 정보탐색과 대안평가를 문제인식보다 앞에 둔 것이 잘못되었다. 문제인식이 구매의사결정 과정의 출발점이다. 올바르게는 '문제인식 → 정보탐색 → 대안평가 → 구매결정 → 구매 후 행동'이다.

④ O — 문제인식에서 시작하여 정보탐색과 대안평가를 거친 뒤 구매를 결정하고, 마지막으로 구매 후 행동이 나타나는 표준적인 순서이다.

**오답 포인트**

정보탐색과 대안평가는 연속된 단계라 순서를 뒤바꾸기 쉽다. 그러나 평가의 재료는 탐색에서 얻은 정보이므로 반드시 '정보탐색 → 대안평가'가 된다. 또한 정보탐색의 출발 조건은 문제인식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절차형 문제에서는 먼저 욕구를 느끼는 '문제인식'을 출발점으로 잡고, '정보를 찾는다 → 비교한다 → 산다 → 산 뒤 반응한다'의 인과관계로 순서를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문제인식 → 정보탐색 → 대안평가 → 구매결정 → 구매 후 행동, 즉 '인식-탐색-평가-결정-구매 후'로 기억한다.

NoteBase

10. 기업이 복수의 사업 활동을 할 때 각각의 사업을 독립적으로 운영할 경우보다 경제적인 사업운영이 가능하게 되는 효과를 의미하는 용어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범위의 경제성
② 규모의 경제성
③ 경험 효과
④ 제품 포트폴리오 관리(PPM)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여러 사업을 함께 운영할 때 자원·기능을 공동 활용하여 개별적으로 운영할 때보다 경제성이 높아지는 현상을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범위의 경제성: 서로 다른 여러 제품이나 사업을 함께 운영하여 공통 자원·기술·유통망 등을 공유함으로써 각각 따로 운영할 때보다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이다. / 결정 차이축: 생산량의 확대가 아니라 사업 범위의 결합이다. / 키워드: 여러 사업, 공동 활용
규모의 경제성: 한 제품이나 사업의 생산 규모가 커질수록 평균비용이 낮아지는 효과이다. / 결정 차이축: 사업의 결합이 아니라 동일 사업의 생산량 확대이다. / 키워드: 대량생산
경험 효과: 누적 생산량과 경험이 늘면서 숙련과 공정 개선으로 단위비용이 낮아지는 효과이다. / 키워드: 누적 경험
제품 포트폴리오 관리(PPM): 여러 제품이나 사업 단위를 시장매력도와 경쟁력 등에 따라 평가하여 자원을 배분하는 관리기법이다. / 키워드: 사업 구성과 자원 배분

**선지별 해설**

① O — 범위의 경제성은 복수의 사업을 결합하여 공통 자원이나 기능을 공유할 때, 각 사업을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경우보다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이므로 제시된 설명과 일치한다.
② X — 틀린 표현은 '규모의 경제성'이다. 규모의 경제성은 한 제품이나 사업의 생산량이 증가할수록 평균비용이 낮아지는 효과이며, 제시된 여러 사업의 공동 운영 효과는 범위의 경제성이다.
③ X — 틀린 표현은 '경험 효과'이다. 경험 효과는 누적 생산과 반복 수행으로 숙련도와 효율이 높아져 단위비용이 낮아지는 효과이며, 여러 사업을 함께 운영하는 효과는 범위의 경제성이다.
④ X — 틀린 표현은 '제품 포트폴리오 관리(PPM)'이다. PPM은 여러 제품이나 사업 단위를 평가하여 자원을 배분하고 전략을 정하는 관리기법이며, 복수 사업의 결합으로 발생하는 비용 절감 효과는 범위의 경제성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경제성’이라는 말만 보고 ② 규모의 경제성을 고르기 쉽다. 이 문항의 핵심 표현은 생산량 증가가 아니라 ‘복수의 사업’과 ‘각각 독립적으로 운영할 경우보다’이므로 범위의 경제성을 가리킨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여러 제품·사업의 결합과 공통 자원 활용이 제시되면 범위의 경제성, 동일 제품의 생산량 확대가 제시되면 규모의 경제성, 누적 생산과 숙련이 제시되면 경험 효과로 구분한다.

**암기 포인트**

여러 사업을 함께하면 범위, 한 사업을 많이 하면 규모, 반복하여 익숙해지면 경험 효과이다.

NoteBase

11. 조직에서 집단 간 갈등을 유발하는 원인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보상구조
② 상위목표
③ 지각의 차이
④ 업무의 상호의존성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집단 간 갈등을 유발하는 요인과 여러 집단의 갈등을 완화하는 요인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집단 간 갈등은 집단들이 서로 양립하기 어려운 목표를 추구하거나 한정된 보상을 두고 경쟁하고, 업무 수행에서 서로 의존할 때 발생하기 쉽다. 반면 상위목표는 어느 한 집단만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워 여러 집단의 협력이 필요한 공동목표이므로 집단 간 갈등을 줄이는 수단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 보상구조가 집단별 성과 경쟁을 부추기거나 한정된 보상을 둘러싼 경쟁을 만들면 집단 간 갈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적절한 원인이다.

② X — 상위목표는 집단들이 함께 달성해야 하는 공동목표로서 갈등을 유발하기보다 이해관계를 통합하고 협력을 촉진한다. 틀린 표현인 '갈등을 유발하는 원인'은 '갈등을 완화하는 수단'으로 고쳐야 한다.

③ O — 동일한 상황이나 정보를 집단마다 다르게 지각하고 해석하면 서로 다른 판단과 기대가 형성되어 갈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적절한 원인이다.

④ O — 업무의 상호의존성이 높으면 한 집단의 성과가 다른 집단의 정보·자원·업무 처리에 좌우되어 조정 실패나 지연이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적절한 원인이다.

**오답 포인트**

②의 '상위목표'를 집단별 목표의 차이와 혼동하기 쉽다. 집단별 목표의 차이는 이해관계를 갈라 갈등을 만들지만, 상위목표는 집단들의 이해관계를 하나의 공동 방향으로 묶어 갈등을 완화한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선지가 집단들을 경쟁·분리시키는지, 공동의 방향으로 통합하는지를 판단한다. 보상 경쟁·목표 차이·업무 상호의존에 따른 조정 문제는 갈등 원인이고, 협력이 필요한 상위목표는 갈등 해결 수단이다.

**암기 포인트**

목표의 차이는 갈등을 만들고, 상위목표는 갈등을 묶어 푼다.

NoteBase

12. 마케팅조사가 필요한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소비자를 이해하려고
② 정부방침을 알려고
③ 재고관리를 하려고
④ 경쟁관리를 하려고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마케팅조사가 필요한 가장 본질적인 이유가 소비자의 욕구와 행동을 이해하여 마케팅 의사결정에 활용하는 데 있음을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마케팅조사는 소비자와 시장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분석하여 마케팅 문제를 파악하고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활동이다. 핵심 대상은 소비자의 욕구, 구매행동, 시장 반응이며, 정부 방침 파악이나 재고관리 자체가 직접적인 목적은 아니다.

**선지별 해설**

① O — 소비자의 욕구와 구매행동을 이해하면 어떤 제품을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제공할지 결정할 수 있으므로 마케팅조사의 가장 본질적인 이유이다.
② X — 틀린 표현은 '정부 방침을 알려고'이다. 정부 방침의 변화가 시장환경 분석 자료가 될 수는 있지만, 이를 아는 것 자체가 마케팅조사의 중심 목적은 아니다. 올바르게는 '소비자와 시장을 이해하여 마케팅 의사결정을 지원하려고'라고 해야 한다.
③ X — 틀린 표현은 '재고관리를 하려고'이다. 재고관리는 주로 생산·운영관리의 영역이며, 마케팅조사는 수요 정보를 제공하여 재고계획에 간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을 뿐이다. 올바르게는 '소비자의 수요와 시장 반응을 파악하려고'라고 해야 한다.
④ X — 틀린 표현은 '경쟁관리를 하려고'이다. 마케팅조사로 경쟁자의 전략과 시장상황을 분석할 수는 있지만 경쟁자를 직접 관리하는 것은 아니다. 올바르게는 '경쟁환경을 분석하고 소비자 중심의 마케팅 전략을 세우려고'라고 해야 한다.

**오답 포인트**

②~④도 기업 의사결정과 관련되어 보여 혼동하기 쉽다. 그러나 문항은 마케팅조사가 필요한 가장 적절한 이유를 묻고 있으므로, 간접적 활용 분야가 아니라 마케팅의 출발점인 소비자 이해를 골라야 한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마케팅조사의 목적을 묻는 문항에서는 소비자의 욕구·행동과 시장정보를 수집·분석하여 마케팅 의사결정을 지원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른 관리 기능에 간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효과와 조사의 직접 목적을 구분한다.

**암기 포인트**

마케팅의 출발은 소비자 이해이고, 마케팅조사는 그 이해를 위한 정보 수집·분석이다.

NoteBase

13. 집단 발전 단계 모델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형성 – 규범 – 혼란 – 해체 – 실행
② 혼란 – 형성 – 규범 – 실행 – 해체
③ 형성 – 혼란 – 규범 – 실행 – 해체
④ 형성 – 실행 – 혼란 – 규범 – 해체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집단이 만들어진 뒤 갈등을 거쳐 규범을 형성하고 과업을 수행한 다음 해체되는 집단 발전 단계의 순서를 묻는 문제이다.

**올바른 순서**

1. 형성 — 구성원들이 처음 만나 집단의 목적과 관계를 탐색하는 단계이다.
2. 혼란 — 역할, 목표, 주도권 등을 둘러싼 의견 차이와 갈등이 나타나는 단계이다.
3. 규범 — 갈등을 조정하면서 공통 규칙과 역할, 결속력이 형성되는 단계이다.
4. 실행 — 안정된 역할과 규범을 바탕으로 과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단계이다.
5. 해체 — 과업을 마친 뒤 집단 활동을 종료하고 구성원들이 분리되는 단계이다.

왜 이 순서인가: 초기 상호작용에서 드러난 갈등을 조정해야 규범이 형성되고, 그 규범이 안정되어야 본격적인 과업 수행이 가능하며, 해체는 과업 수행이 끝난 뒤에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 '규범 → 혼란'과 '해체 → 실행'의 선후가 모두 바뀌어 있다. 갈등이 나타나는 혼란 단계 뒤에 규범이 형성되고, 과업을 수행하는 실행 단계 뒤에 집단이 해체된다. 올바르게는 '형성 → 혼란 → 규범 → 실행 → 해체'이다.

② X — '혼란 → 형성'이 잘못되었다. 구성원들이 먼저 집단을 형성하고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역할과 목표를 둘러싼 혼란이 발생한다. 올바르게는 '형성 → 혼란 → 규범 → 실행 → 해체'이다.

③ O — '형성 → 혼란 → 규범 → 실행 → 해체'로, 집단 발전의 5단계를 정확한 순서로 제시한다.

④ X — '형성 → 실행'이 잘못되었다. 집단은 형성 직후 곧바로 원활하게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혼란과 규범 단계를 거쳐야 한다. 올바르게는 '형성 → 혼란 → 규범 → 실행 → 해체'이다.

**오답 포인트**

혼란을 집단 형성 이전의 상태로 보거나, 집단이 형성되자마자 실행 단계에 들어간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이 모형에서 혼란은 형성된 구성원들의 상호작용 속에서 나타나며, 이를 조정해 규범이 만들어진 뒤에 실행이 이루어진다. 또한 해체는 과업 수행이 끝난 마지막 단계이다.

NoteBase

###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집단의 시작인 형성을 먼저 두고, '갈등 발생 → 규칙 정착 → 과업 수행 → 활동 종료'의 인과 흐름에 따라 혼란, 규범, 실행, 해체를 차례로 배열한다.

### 암기 포인트

형성한 집단은 혼란을 겪고 규범을 세운 뒤 실행하고 해체한다: 형-혼-규-실-해.

NoteBase

14. 회계처리 시 차변(Debit)과 대변(Credit)에 기재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차변 | 대변 |
|---|---|---|
| ① | 자산의 증가 | 자산의 감소 |
| ② | 부채의 증가 | 부채의 감소 |
| ③ | 자본의 증가 | 자본의 감소 |
| ④ | 수익의 발생 | 비용의 발생 |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자산·부채·자본·수익·비용의 증가와 감소를 차변과 대변 중 어디에 기록하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차변은 자산과 비용의 증가, 부채·자본·수익의 감소를 기록하는 쪽이다. 대변은 부채·자본·수익의 증가, 자산과 비용의 감소를 기록하는 쪽이다. 즉 자산·비용은 차변에서 증가하고, 부채·자본·수익은 대변에서 증가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 자산의 증가는 차변에, 자산의 감소는 대변에 기록하므로 옳다.
② X — '차변: 부채의 증가, 대변: 부채의 감소'가 서로 바뀌었다. 올바르게는 부채의 감소를 차변에, 부채의 증가를 대변에 기록한다.
③ X — '차변: 자본의 증가, 대변: 자본의 감소'가 서로 바뀌었다. 올바르게는 자본의 감소를 차변에, 자본의 증가를 대변에 기록한다.
④ X — 수익과 비용의 기록 방향이 서로 바뀌었다. 올바르게는 비용의 발생을 차변에, 수익의 발생을 대변에 기록한다.

**오답 포인트**

차변을 무조건 증가, 대변을 무조건 감소로 이해하면 ②와 ③을 고르기 쉽다. 증가·감소의 기록 방향은 계정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며, ④의 수익과 비용도 서로 반대 방향에 기록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계정을 자산·비용과 부채·자본·수익의 두 묶음으로 나눈다. 자산·비용의 증가는 차변, 부채·자본·수익의 증가는 대변이며, 감소는 각각 그 반대쪽이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자산·비용은 차변 증가, 부채·자본·수익은 대변 증가이다.

NoteBase

15. 자재소요계획(Material Requirements Planning: MRP)의 3대 구성요소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주생산계획(Master Production Schedule: MPS)
② 자재명세서(Bill Of Materials: BOM)
③ 재고기록(Inventory Record: IR)
④ 부품주문계획(Part Order Plan: POP)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자재소요계획(MRP)을 계산하는 3대 기본 입력자료와 그 계산 결과로 작성되는 계획을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자재소요계획(MRP)은 완제품 생산계획을 바탕으로 필요한 부품의 종류·수량·시기를 계산하는 시스템이다. 3대 기본 입력자료는 주생산계획(MPS), 자재명세서(BOM), 재고기록(IR)이다. MPS는 무엇을 언제 얼마나 생산할지, BOM은 완제품 1단위에 어떤 자재가 얼마나 필요한지, IR은 현재 재고와 입출고 예정 정보를 제시한다. 부품주문계획(POP)은 이러한 입력자료를 처리해 도출하는 주문 관련 계획이므로 기본 입력자료에 포함되지 않는다.

**선지별 해설**

① O — 주생산계획(MPS)은 최종제품별 생산 수량과 시기를 제시하므로 MRP의 기본 입력자료이다.
② O — 자재명세서(BOM)는 제품을 구성하는 부품의 종류와 소요량 및 계층관계를 나타내므로 MRP의 기본 입력자료이다.
③ O — 재고기록(IR)은 현재고, 예정입고량, 리드타임 등 순소요량과 주문 시기를 계산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므로 MRP의 기본 입력자료이다.
④ X — 틀린 표현은 '부품주문계획(POP)이 MRP의 3대 구성요소이다'라는 부분이다. 올바르게는 부품주문계획은 MPS·BOM·IR을 이용한 MRP 계산에서 도출되는 주문 관련 계획이며, 3대 기본 입력자료는 주생산계획·자재명세서·재고기록이다.

**오답 포인트**

④의 부품주문계획도 MRP 업무와 직접 관련되므로 입력자료처럼 보이는 것이 함정이다. 그러나 문제의 '3대 구성요소'는 계산 전에 주어지는 MPS·BOM·IR을 가리키며, POP는 이를 바탕으로 산출되는 계획이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MRP 문항에서는 '무엇을 얼마나 만들 것인가(MPS) → 무엇이 얼마나 필요한가(BOM) → 이미 무엇을 보유하고 있는가(IR)'의 세 입력을 먼저 찾는다. 이 자료를 계산한 뒤 생기는 주문량·주문시기 관련 계획은 산출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MRP의 3대 입력은 MPS·BOM·IR이고, 주문계획은 계산 결과이다.

NoteBase

16. 직원의 선발방법 기준 중 신뢰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신뢰성은 성과측정이 확률적 오차로부터 자유로운 정도를 의미한다.
② 신뢰성을 평가하는 데 있어 상관계수를 계산해야 하고, 상관계수는 두 변수들 사이의 상관관계의 정도를 나타낸다.
③ 신뢰성을 평가할 때, 측정의 신뢰도 평가와 신뢰성의 기준이 중요하다.
④ 신뢰성은 선발도구로부터의 성과가 직무로부터 성과를 반영하는 정도를 나타낸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선발도구의 신뢰성이 측정 결과의 일관성과 오차의 정도에 관한 개념임을 알고, 직무성과와의 관련성을 뜻하는 타당성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신뢰성은 동일한 대상을 반복하거나 동등한 방식으로 측정할 때 일관된 결과가 나오는 정도이며, 확률적 측정오차가 적을수록 높다. 타당성은 선발도구가 측정하려는 속성을 제대로 측정하거나 직무성과 같은 준거를 얼마나 잘 예측하는지를 뜻한다. 신뢰성은 일관성, 타당성은 정확성과 준거 관련성이 핵심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신뢰성은 측정 결과가 확률적 오차의 영향을 받지 않고 일관되게 나타나는 정도를 의미하므로 적절하다.

② O
신뢰성은 반복 측정값이나 동등한 측정값 사이의 일치 정도를 상관계수 형태의 신뢰도계수로 나타낼 수 있다. 두 측정 결과의 상관이 높을수록 신뢰성이 높다고 본다.

③ O
신뢰성을 판단할 때에는 측정도구가 일관된 결과를 내는지를 평가하는 방법과 어느 수준을 충분한 신뢰성으로 볼 것인지에 관한 기준이 중요하므로 적절하다.

④ X
틀린 표현은 '선발도구로부터의 성과가 직무로부터 성과를 반영하는 정도'이다. 이는 선발도구의 점수가 실제 직무성과라는 준거와 관련되는 정도인 준거관련 타당성에 관한 설명이다. 올바르게는 '신뢰성은 선발도구가 반복되거나 동등하게 사용될 때 일관된 측정 결과를 산출하는 정도를 나타낸다'이다.

**오답 포인트**

④의 '선발도구 성과와 직무성과의 관련성'을 신뢰성으로 착각하기 쉽다. 직무성과와의 관련성은 준거관련 타당성이고, 신뢰성은 반복 측정 결과의 일관성에 관한 개념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선지에 반복 측정, 일관성, 측정오차가 나오면 신뢰성으로 판단한다. 직무성과 예측, 준거와의 관련성, 측정하려는 속성의 정확한 측정이 나오면 타당성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신뢰성은 일관성, 타당성은 정확성과 직무성과 예측력이다.

NoteBase

17. 기업이 다른 기업에게 보상을 받고 자사의 사업 시스템을 이용하게 하는 관계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라이선싱(Licensing)
② 프랜차이징(Franchising)
③ 조인트 벤처(Joint Venture)
④ 팩토링(Factoring)

**정답 2번**

###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다른 기업이 보상을 지급하고 특정 기업의 사업 시스템을 이용하는 관계가 프랜차이징임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 핵심 개념

프랜차이징: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상호·상표뿐 아니라 영업 방식, 운영 노하우 등 사업 시스템의 사용권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관계이다. 키워드는 '사업 시스템 전체'이다.
라이선싱: 특허, 상표, 기술 등 특정 지식재산의 사용권을 허락하고 로열티 등의 대가를 받는 관계이다. 키워드는 '특정 지식재산 사용권'이다.
조인트 벤처는 둘 이상의 기업이 공동으로 출자·경영하는 사업 형태이고, 팩토링은 매출채권을 팩터에게 양도하여 자금화하거나 회수 서비스를 받는 금융 거래이다.

### 선지별 해설

① X — 라이선싱은 특허·상표·기술 등 특정 지식재산의 사용을 허락하는 관계이므로 '사업 시스템을 이용하게 하는 관계'라는 설명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다. 틀린 표현은 '라이선싱'이며, 올바르게는 '특정 지식재산의 사용권을 대가를 받고 허락하는 관계'이다.
② O — 프랜차이징은 가맹본부가 보상을 받고 가맹점에 자사의 상호와 운영 방식 등 사업 시스템을 이용하게 하는 관계이므로 제시된 정의에 해당한다.
③ X — 조인트 벤처는 기업들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사업을 소유·경영하는 형태이지, 한 기업이 다른 기업에 자사의 사업 시스템 사용권을 주는 관계가 아니다. 틀린 표현은 '조인트 벤처'이며, 올바르게는 '둘 이상의 기업이 공동 출자·경영하는 사업 형태'이다.
④ X — 팩토링은 기업이 매출채권을 금융회사 등에 양도하여 조기에 현금화하거나 채권 회수 서비스를 받는 거래이지, 사업 시스템의 이용을 허락하는 관계가 아니다. 틀린 표현은 '팩토링'이며, 올바르게는 '매출채권의 양도·관리·회수와 관련된 금융 거래'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① 라이선싱도 사용권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다는 점에서 프랜차이징과 비슷해 보인다. 그러나 문장의 '사업 시스템'은 상표나 기술 하나가 아니라 영업 방식과 운영 노하우까지 묶어 제공하는 프랜차이징의 결정적 단서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상표·특허·기술 등 특정 권리의 사용 허락이면 라이선싱, 상호와 운영 방식 등 사업 시스템 전체의 사용 허락이면 프랜차이징으로 판단한다. 공동 출자·경영은 조인트 벤처, 매출채권의 양도·회수는 팩토링으로 구분한다.

**암기 포인트**

개별 권리는 라이선싱, 사업 시스템은 프랜차이징, 공동 출자는 조인트 벤처, 매출채권은 팩토링이다.

NoteBase

18. 재무관리의 목표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기업가치의 극대화
② 매출의 극대화
③ 주주 부의 극대화
④ 주가의 극대화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재무관리의 궁극적 목표가 단순한 외형 확대가 아니라 기업가치와 주주 부의 극대화라는 점을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기업가치 극대화는 미래 현금흐름의 크기·발생 시점·위험을 종합하여 기업 전체의 경제적 가치를 높이는 것이다. 주주 부의 극대화는 주주에게 귀속되는 지분가치를 높이는 것이며, 상장기업에서는 주가의 극대화로 구체화된다. 반면 매출 극대화는 판매액만 늘리는 목표이므로 비용, 위험, 현금흐름의 시점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 기업가치의 극대화는 기업의 장기적 경제적 가치를 높이는 것으로 재무관리의 적절한 목표이다.
② X — 틀린 표현은 '매출의 극대화'이다. 매출이 늘어도 비용이나 위험이 더 크게 증가하면 기업가치가 낮아질 수 있으므로, 올바르게는 '기업가치 또는 주주 부의 극대화'이다.
③ O — 주주 부의 극대화는 주주에게 귀속되는 지분가치를 높이는 것으로 재무관리의 핵심 목표이다.
④ O — 주가는 주주지분의 시장가치를 나타내므로 주가의 극대화는 주주 부의 극대화를 구체적으로 표현한 적절한 목표이다.

**오답 포인트**

②의 '매출'은 기업의 규모가 커지는 외형 지표여서 그 자체가 최종 목표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재무관리는 매출액의 크기만이 아니라 비용, 현금흐름의 시점과 위험까지 반영한 가치의 증가를 목표로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목표가 현금흐름의 크기·시점·위험을 반영하여 기업이나 주주의 가치를 높이는지 확인한다. 매출, 시장점유율, 회계이익처럼 한 지표만 크게 만드는 것은 궁극적 재무관리 목표와 구별한다.

**암기 포인트**

재무관리의 목표는 매출 극대화가 아니라 기업가치·주주 부·주가의 극대화이다.

NoteBase

19. 생산제품의 수요 예측에 활용되는 시계열분석 모델에서 다음의 시계열 데이터 구성요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추세변동(Trend Variation) - 장기간에 걸친 변동의 전반적 방향성
② 계절변동(Seasonal Variation) - 1년을 주기로 동일 계절이나 시기에 따라 반복되는 변동
③ 순환변동(Cyclical Variation) - 일정한 주기에 걸쳐 단기간에 균일하게 발생하는 변동
④ 불규칙변동(Irregular Variation) - 예상할 수 없는 돌발적 원인이나 불분명한 원인으로 일어나는 변동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시계열의 네 가지 구성요소인 추세변동·계절변동·순환변동·불규칙변동을 변동의 기간, 반복성, 원인에 따라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추세변동: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지속적인 상승·하락의 전반적 방향이다.
계절변동: 1년을 주기로 계절, 월, 분기 등 일정한 시기에 반복되는 변동이다.
순환변동: 경기순환처럼 여러 해에 걸쳐 상승과 하강이 되풀이되지만 주기와 진폭이 일정하지 않은 변동이다.
불규칙변동: 재난, 사고 등 예측하기 어려운 돌발적 요인으로 발생하는 비반복적 변동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 추세변동은 장기간에 걸친 시계열의 전반적인 상승 또는 하락 방향을 뜻하므로 적절하다.
② O — 계절변동은 1년을 주기로 같은 계절이나 시기에 반복되는 변동이므로 적절하다.
③ X — 틀린 표현은 '일정한 주기에 걸쳐 단기간에 균일하게 발생'이다. 순환변동은 경기의 확장과 수축처럼 여러 해에 걸쳐 반복될 수 있지만, 발생 주기와 진폭이 일정하거나 균일하지 않은 변동이다.
④ O — 불규칙변동은 예측하기 어려운 돌발적 사건이나 원인이 불분명한 요인으로 발생하는 비정상적·비반복적 변동이므로 적절하다.

**오답 포인트**

③의 '순환'이라는 말만 보고 규칙적인 고정 주기를 떠올리기 쉽다. 순환변동은 상승과 하강이 되풀이된다는 뜻이지, 계절변동처럼 일정한 주기로 균일하게 반복된다는 뜻은 아니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장기적인 방향이면 추세변동, 1년 안의 정기적 반복이면 계절변동, 여러 해에 걸친 비정기적 경기 파동이면 순환변동, 예측하기 어려운 돌발 요인이면 불규칙변동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추세는 장기 방향, 계절은 1년 주기, 순환은 장기 파동·주기 불규칙, 불규칙은 돌발 요인이다.

NoteBase

20. 인사관리와 관련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능력은 어떤 사람이 현재 지니고 있는 소질의 수준에 대한 평가이다.
② 경영자들은 개인 간에 나타나는 능력의 차이보다는 그들이 과연 자산들의 능력을 활용하여 조직 안에서 부여되는 직무를 잘 수행해낼 수 있는가에 더 큰 관심을 갖는다.
③ 조직 구성원의 성과는 그의 능력에 맞는 직무에 배치되었을 때 높아진다.
④ 조직 구성원의 능력이 맡겨진 직무에서 요구되는 수준보다 낮을 경우 문제가 되지만 높을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개인의 능력과 직무가 요구하는 능력 수준 사이의 적합성을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능력은 개인이 현재 지닌 소질이나 역량의 수준을 평가한 것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현재의 역량을 뜻한다. 능력-직무 적합성은 개인의 능력 수준과 직무가 요구하는 수준이 서로 맞는 정도이다. 능력이 요구 수준보다 낮으면 수행이 어렵고, 지나치게 높으면 능력의 미활용에 따른 불만이나 좌절이 생길 수 있으므로 양쪽 모두 부적합 문제가 될 수 있다.

**선지별 해설**

① O — 능력은 어떤 사람이 현재 지닌 소질이나 역량이 어느 수준인지를 나타내는 평가이므로 적절하다.
② O — 경영자는 개인 간 능력 차이 자체보다 구성원의 능력을 직무 요구와 맞추어 성과를 내게 하는 데 더 큰 관심을 둔다.
③ O — 구성원의 능력과 직무가 요구하는 능력이 잘 맞을수록 직무 수행이 원활해져 성과가 높아질 수 있다.
④ X — 틀린 표현은 '높을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이다. 올바르게는 구성원의 능력이 직무 요구 수준보다 낮은 경우뿐 아니라 지나치게 높은 경우에도 능력의 미활용, 직무 불만, 좌절 등 부적합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오답 포인트**

④는 능력이 많을수록 언제나 좋다는 생각을 유도한다. 그러나 인사관리의 핵심은 능력의 절대적 크기가 아니라 개인의 능력과 직무 요구 수준의 적합성이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개인의 능력과 직무 요구를 비교하여 부족과 과잉을 모두 부적합으로 판단한다. ‘능력이 높으면 항상 문제없다’는 표현은 능력-직무 적합성 관점에 어긋난다.

**암기 포인트**

능력은 높고 낮음보다 직무 요구와의 적합성이 중요하며, 부족도 과잉도 문제가 될 수 있다.

NoteBase

21. 자본자산가격결정모형(Capital Asset Pricing Model: CAPM)의 기본 가정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모든 투자자는 자산의 미래수익률 분포에 대해 동질적으로 기대한다.
② 모든 투자자는 평균-분산 기준에 따라 투자한다.
③ 모든 투자자는 위험선호형이며, 기대효용이 극대화되도록 투자한다.
④ 무위험자산이 존재하며, 모든 투자자는 무위험이자율로 자금을 얼마든지 차입 또는 대출할 수 있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CAPM이 전제하는 투자자의 위험 태도와 투자 의사결정 기준, 동질적 기대 및 무위험 차입·대출 가정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CAPM은 모든 투자자가 위험회피적이며 기대효용을 극대화하도록 평균과 분산을 기준으로 포트폴리오를 선택한다고 가정한다. 또한 투자자들은 자산수익률의 확률분포에 대해 동질적으로 기대하고, 동일한 무위험이자율로 제한 없이 차입하거나 대출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
위험회피형은 같은 기대수익률이면 위험이 더 작은 대안을 선호하고, 위험선호형은 위험 그 자체를 선호한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선지별 해설**

① O — 모든 투자자가 자산의 미래수익률 분포에 대해 동일한 예측을 한다는 동질적 기대는 CAPM의 기본 가정이다.
② O — 투자자는 기대수익률인 평균과 위험인 분산을 기준으로 효율적인 포트폴리오를 선택한다고 가정한다.
③ X — 틀린 표현은 '위험선호형'이다. 기대효용을 극대화한다는 부분은 맞지만, CAPM의 투자자는 위험선호형이 아니라 위험회피형이다. 올바르게는 '모든 투자자는 위험회피형이며, 기대효용이 극대화되도록 투자한다'이다.
④ O — 무위험자산이 존재하고 모든 투자자가 동일한 무위험이자율로 금액의 제한 없이 차입하거나 대출할 수 있다는 것은 표준적인 CAPM 가정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③은 '기대효용 극대화'라는 맞는 표현에 '위험선호형'이라는 틀린 표현을 결합했다. 기대효용을 극대화한다는 사실이 곧 위험을 선호한다는 뜻은 아니며, CAPM에서는 위험회피적 투자자가 위험과 기대수익률을 함께 고려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CAPM의 투자자 가정은 '위험회피적 투자자, 평균-분산 기준, 동질적 기대, 동일한 무위험이자율의 자유로운 차입·대출'로 확인한다. 선지에 위험선호형 또는 위험중립형이 제시되면 기본 가정과 어긋나는지 먼저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CAPM 투자자는 위험선호형이 아니라 위험회피형이다. 평균-분산·동질적 기대·무위험 차입과 대출을 함께 기억한다.

NoteBase

22. 노나카(Nonaka)가 제시한 암묵지와 형식지 간 상호작용을 통한 지식변환과정을 의미하는 SECI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외재화(Externalization)는 특정 사람의 형식지가 다른 사람의 암묵지로 생성·전이되는 과정이다.
② 사회화(Socialization)는 특정 사람의 암묵지가 다른 사람의 암묵지로 생성·전이되는 과정이다.
③ 종합화(Combination)는 특정 사람의 암묵지가 다른 사람의 형식지로 생성·전이되는 과정이다.
④ 내재화(Internalization)는 특정 사람의 형식지가 다른 사람의 형식지로 생성·전이되는 과정이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노나카의 SECI 모형에서 사회화·외재화·종합화·내재화가 각각 암묵지와 형식지를 어느 방향으로 변환하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암묵지는 개인의 경험과 숙련에 체화되어 말이나 문서로 표현하기 어려운 지식이고, 형식지는 언어·문서·매뉴얼처럼 명시적으로 표현하고 전달할 수 있는 지식이다.
사회화(Socialization): 암묵지 → 암묵지이다. 공동 경험, 관찰, 모방 등을 통해 한 사람의 체화된 지식이 다른 사람의 체화된 지식으로 전환된다.
외재화(Externalization): 암묵지 → 형식지이다. 체화된 노하우를 말, 개념, 모형 등으로 명시한다.
종합화(Combination): 형식지 → 형식지이다. 여러 형식지를 분류·결합·재구성하여 새로운 형식지를 만든다.
내재화(Internalization): 형식지 → 암묵지이다. 문서화된 지식을 학습하고 실행하여 개인의 경험과 노하우로 체화한다.

**선지별 해설**

① X — '형식지가 다른 사람의 암묵지로 생성·전이된다'는 변환 방향이 외재화와 맞지 않는다. 외재화는 특정 사람의 암묵지가 표현 가능한 형식지로 전환되는 과정이다.
② O — 사회화는 공동 경험, 관찰, 모방 등을 통해 특정 사람의 암묵지가 다른 사람의 암묵지로 생성·전이되는 과정이므로 적절하다.
③ X — '암묵지가 다른 사람의 형식지로 생성·전이된다'는 설명은 종합화가 아니라 암묵지를 형식지로 바꾸는 외재화에 해당한다. 종합화는 기존의 여러 형식지를 결합·재구성하여 새로운 형식지를 만드는 과정이다.
④ X — '형식지가 다른 사람의 형식지로 생성·전이된다'는 설명은 내재화의 방향이 아니다. 내재화는 형식지를 학습과 실천을 통해 개인의 암묵지로 체화하는 과정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선지들은 네 과정의 명칭과 지식 변환 방향을 서로 바꾸어 놓았다. 특히 ①은 내재화에 가까운 방향을 외재화로, ③은 외재화의 방향을 종합화로, ④는 종합화에 가까운 방향을 내재화로 제시한 것이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각 과정의 설명에서 출발 지식과 도착 지식을 먼저 표시한다. 암묵지→암묵지는 사회화, 암묵지→형식지는 외재화, 형식지→형식지는 종합화, 형식지→암묵지는 내재화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사암암, 외암형, 종형형, 내형암으로 연결한다.

NoteBase

23. 인적자원 모집의 방법에서 외부모집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직무 기술서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이 잘 파악하고 있는 지원자를 모집할 수 있다.

② 지원자가 많을수록 비용과 속도에서 효율성이 높다.

③ 새로운 아이디어와 새로운 방식의 업무를 진행하는 데 효과가 있고, 회사를 강화하고 경쟁자를 약화시키는 데 좋은 방법이다.

④ 지원자들은 지원하는 일자리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기에, 일자리에 대한 과장된 기대를 최소화 할 수 있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외부모집의 장점과 단점을 내부모집의 특징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외부모집은 기업 밖의 노동시장에서 지원자를 찾아 채용하는 방식이다. 새로운 인재·아이디어를 유입하고 인력 선택의 범위를 넓힐 수 있지만, 모집 비용과 시간이 들고 지원자의 능력과 조직 적합성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 내부모집은 조직 내부 구성원을 승진·전환배치하여 충원하는 방식이다. 지원자의 능력과 경력을 비교적 잘 알고 있어 평가가 쉽지만, 인재 선택의 범위가 좁고 새로운 관점의 유입이 제한될 수 있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직무기술서는 직무의 내용·책임·작업조건 등을 제시하여 지원자가 해당 직무를 이해하도록 돕는 자료이지, 기업이 이미 잘 파악하고 있는 지원자를 모집하게 하는 수단은 아니다. 외부지원자는 기업이 사전에 잘 알기 어렵다. 틀린 표현인 '기업이 잘 파악하고 있는 지원자를 모집할 수 있다'는 '지원자가 직무 내용을 이해하고 지원 여부를 판단하도록 도울 수 있다'로 고쳐야 한다.

② X
지원자가 많아지면 선택의 폭은 넓어지지만 지원서 검토·선발에 드는 비용과 시간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비용과 속도 면의 효율성이 높다고 단정할 수 없다. '비용과 속도에서 효율성이 높다'는 '선택의 폭은 넓어지지만 모집·선발 비용과 시간이 증가할 수 있다'로 고쳐야 한다.

③ O
외부 인재는 기존 구성원과 다른 경험, 아이디어, 업무 방식을 조직에 들여올 수 있다. 특히 경쟁기업의 유능한 인력을 영입하면 자사의 역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경쟁기업의 인적 역량을 약화시키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④ X
외부지원자는 기업과 실제 직무에 관한 내부 정보가 부족할 수 있어 일자리에 대해 과장된 기대를 가질 가능성이 있다. '지원자들이 지원하는 일자리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기에'는 '현실적 직무소개 등을 통해 일자리의 실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면'으로 고쳐야 한다.

**오답 포인트**

외부모집은 지원자 수와 새로운 관점을 늘리는 데 유리하지만, 이것이 곧 낮은 비용·빠른 선발·지원자에 대한 높은 사전 이해를 뜻하지는 않는다. ①의 '기업이 잘 파악', ②의 '비용과 속도에서 효율', ④의 '일자리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음'이 외부모집의 일반적 특징과 어긋나는 표현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새로운 인재·아이디어, 넓은 선택 범위'는 외부모집의 장점으로, '높은 비용과 시간, 지원자·조직 적합성 파악의 어려움'은 외부모집의 단점으로 판단한다. '기존 인재를 잘 알고 있음, 낮은 적응 위험'은 내부모집에 가까운 특징이다.

**암기 포인트**

외부모집은 새바람과 넓은 선택, 그 대가는 비용·시간과 정보 부족이다.

NoteBase

24. 포터(Porter)가 제시한 본원적 경쟁전략(Generic Strategy)의 유형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원가우위전략(Cost Leadership Strategy)
② 차별화전략(Differentiation Strategy)
③ 방어형전략(Defender Strategy)
④ 집중화전략(Focused Strategy)

**정답 3번**

### 출제 포인트

포터의 본원적 경쟁전략에 속하는 원가우위전략·차별화전략·집중화전략과 다른 이론의 전략 유형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 핵심 개념

포터의 본원적 경쟁전략은 경쟁우위의 원천과 경쟁범위를 기준으로 기업의 경쟁 방식을 원가우위전략, 차별화전략, 집중화전략으로 구분한 것이다.
원가우위전략은 넓은 시장에서 낮은 비용을 경쟁우위로 삼고, 차별화전략은 넓은 시장에서 독특한 가치를 경쟁우위로 삼으며, 집중화전략은 좁은 세분시장에 초점을 맞추는 전략이다.

### 선지별 해설

① O — 원가우위전략(Cost Leadership Strategy)은 산업 전반의 넓은 시장을 대상으로 경쟁자보다 낮은 비용 구조를 확보하는 포터의 본원적 경쟁전략이다.
② O — 차별화전략(Differentiation Strategy)은 제품·서비스의 독특한 가치를 통해 경쟁우위를 얻는 포터의 본원적 경쟁전략이다.
③ X — 방어형전략(Defender Strategy)은 포터의 본원적 경쟁전략이 아니라 마일즈와 스노우의 전략 유형에 속한다. 틀린 표현인 '방어형전략'은 포터의 분류에 맞게 '집중화전략'으로 고쳐야 한다.
④ O — 집중화전략(Focus Strategy)은 특정 고객층·지역·제품군과 같은 좁은 세분시장에 자원을 집중하는 포터의 본원적 경쟁전략이다.

### 오답 포인트

③의 방어형전략도 일반적인 경쟁전략처럼 보이지만, 이는 마일즈와 스노우의 적응전략 유형이라는 점이 함정이다. 포터의 세 가지 본원적 경쟁전략 명칭만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선지에 원가우위·차별화·집중화가 나오면 포터의 본원적 경쟁전략으로 판단한다. 방어형이 나오면 포터가 아니라 마일즈와 스노우의 분류인지 확인한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포터는 원가우위·차별화·집중화이며, 방어형은 마일즈와 스노우의 유형이다.

NoteBase

25. 직무설계의 동기부여적 접근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직무특성이 심리적 의미와 잠재적 동기에 영향을 준다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② 동기부여적 접근법은 직무설계에 있어 조직심리학에 기반을 두고 있다.

③ 전통적인 산업공학에 근간을 두고 있으며, 직무 구조화 방식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④ 직무만족, 직무관여, 참여와 성과 변수 등의 태도변수를 직무설계의 중요한 결과로 보고 있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직무설계의 동기부여적 접근법과 기계적 접근법을 목적과 이론적 기반에 따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동기부여적 접근법은 직무가 구성원에게 심리적 의미와 내재적 동기를 주도록 설계하여 만족·몰입·성과를 높이려는 접근이다. 조직심리학에 기반하며 직무특성이론이 대표적이다.
기계적 접근법은 과업을 단순화·전문화·표준화하여 작업 효율성을 높이려는 접근이다. 전통적 산업공학에 기반한다.
따라서 동기부여적 접근법은 심리적 의미와 태도·동기를, 기계적 접근법은 분업과 효율성을 중심으로 본다.

**선지별 해설**

① O — 동기부여적 접근법은 직무특성이 구성원의 심리상태와 내재적 동기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둔다.
② O — 동기부여적 접근법은 직무와 인간의 심리적 관계를 다루므로 조직심리학에 이론적 기반을 둔다.
③ X — 틀린 표현은 '전통적인 산업공학에 근간을 두고 있으며, 직무 구조화 방식의 효율성을 극대화'한다는 부분이다. 이는 동기부여적 접근법이 아니라 과업의 단순화·전문화·표준화를 중시하는 기계적 접근법의 설명이다. 올바르게는 동기부여적 접근법은 조직심리학에 기반하여 직무의 심리적 의미와 내재적 동기를 높이는 데 초점을 둔다.
④ O — 동기부여적 접근법은 직무만족, 직무관여, 참여와 같은 태도변수와 성과를 직무설계의 중요한 결과로 본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③의 '효율성 극대화'는 직무설계 전반의 바람직한 목표처럼 보이지만, '전통적인 산업공학'과 결합하면 기계적 접근법을 가리킨다. 문제의 부정형 표현인 '적절하지 않은 것'도 함께 확인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심리적 의미·내재적 동기·직무만족·조직심리학'이 나오면 동기부여적 접근법으로,
'산업공학·단순화·전문화·표준화·효율성'이 나오면 기계적 접근법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동기부여적 접근은 심리와 동기, 기계적 접근은 분업과 효율이다.

NoteBase